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238호
12월 16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예하성 부흥사회 겨울단합기도회

2023년 부흥사 비전실현 재교육, 재충전...성령충만



김기진 목사
부흥사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는 지난 12월 11일(월) 충북 제천 순복음양분교회(담임 김기진 목사)에서 겨울 단합기도회를 갖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복음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성령충만과 그 은총 아래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국가의 안보와 동성애법 저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사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재교육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오후 1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일정을 진행한 이번 대회는 부흥사회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 김남수 목사의 대표기도, 부흥사회장 김기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부흥사가 명심해야 할 사명은 ‘복음’과 ‘성령충만’이며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이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성령충만해야 하며 성령의 권능을 한입어 능히 행하고 복음을 전하되 구속신앙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며 종교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이단 사설을 배격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특강1 순서로 재주한마음교회 김건수 목사의 특강인도, 특강2, 3은 작전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특강인도 시간이 계속되었다.

세미나 후 회장 김기진 목사는 강단교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교회부흥을 위해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예하성 부흥사회는 자유주의 및 사이비부흥운동과 불건전한 부흥운동을 배격하는 성경적부흥운동

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국내외 교회와 기독교원의 부흥회를 개최하며 미지림교회의 자비량부흥회를 적극 후원한다.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1년 1회 부흥사 자질개발과 친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예하성 부흥사회에서는 뜨거운 사명감 속에 피땀으로 복음의 말씀을 외치며 이 땅의 구사역과 한국교회의 부흥, 교단의 부흥,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할 사명자와 부흥사 신임회원 및 준회원들을 모집한다. 또한 아울러 교단산하 모든 교회들의 주간 부흥회와 도시 개척교회 및 미지림교회 자비량부흥회(부흥사회 지원) 신청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수함과 열정이 있는 기쁨이신 부흥회를 통해서 섬기시는 교회에 성도들의 심령 부흥과 교회 성장을 약속드린다.

문의: 회장 김기진 목사 010-4112-9813 / 총무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교단 제72차 총회 제7회 임원회

한미동맹 북핵저지 공조강화, 최저출산국 탈출 전국민 동참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7회 임원회가 지난 11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산정리순복음교회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조순남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담화 4:21 말씀을 본문으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순해 보는 일에도 함께한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삶을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의 일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인데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당부했다.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서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 회계보고, 재무보고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대한기독교노인회 출범과 제72-3회 실행위원회 개최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교역자가임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전환입 청원 등을 비롯 부흥사회 단합기도회, 제72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및 임원회의 일정 등이 보고·

결의되었다.

임원들은 감염병 공식 종료 선언 후에도 독감을 비롯 최근 꽤 많은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의 권고를 강화하여 감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마음을 모았다.

아울러 임원들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말씀에국으로 영혼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이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특히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원의 회복을 위해, 좌편향 예외권 교과서로 교육이 어긋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홍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하나님께 영광, 건강한 마음과 육체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 다짐

탁구선교회 충북 보은 은혜서원교회에서 11월 모임 가져

교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탁구선교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11월 28일(화) 오전 11시 충북 보은 은혜서원교회(담임 장성미 목사)에서 11월 모임을 갖고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고자 회원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다.

회원들은 모임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근의 한 탁구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연습경기과 단식, 복식 등 친선 경기를 갖고 건강한 마음과 육체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임원진을 선출했으며 임원진은 다

음과 같다.

회장 엄기설 목사, 총무 기호선 목사, 서기 문찬우 목사, 회계 이반석 목사, 감목&코치 임태현 목사



교회건물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한기총 “교회건축물도 안전 내용과 시행에 참여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교회 안전관리위원회(교회안전위)는 지난 11월 30일(목) 오후 한기총 회의실에서 교회건물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교회안전위 위원장 박승주 목사(새일꾼교회)가 강연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연수만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며 “세월은 중단할 수 없지만, 생명은 더 단정해서 살아도 할 일은 많고, 살아가기 위한 의식주에서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사망자 502, 부상자 937명), 삼수대교 붕괴(1994년, 사망자 32명, 부상자 17명), 성남 정자교 붕괴(2023년,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이태원 압사 사고(2022년,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5명),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고(2020년, 사망자 38명, 부상자 10명), 광주 화



정동 아이파크 붕괴(2022년, 사망자 6명),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붕괴사고(2023년) 등의 사고사례를 소개하며 “대형 사고들을 맞이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고로 생명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관련업 종사자들의 책임만은 아니며 모든 국민이 생명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박 목사는 “국가에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 점검, 3년마다 정밀 점검, 5년마다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서공회, 제140회 정기이사회 개최

전 세계 68개 성서공회에 804,332부 무상기증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 목사) 제14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초성서회관에서 개최됐다. 1부 기도회에서는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가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의현 사장·호재민 총무·이두희 소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으

로는 교단 대표로 황순환 목사(예장통합), 김재곤 목사(기성), 조성봉 목사(기침), 이정현 목사(예장대신)가 선임되었다. 찬성회원 대표로는 김경원 목사, 정명철 목사, 최규환 장로, 손덕현 목사, 이형로 목사가 선임되었다. 이어 광철영 감사가 선임되었다.

권의현 사장은 ‘사장 보고’를 통해 “그동

안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해외 성서 제작 협의가 재개되면서 세계 자매 성서공회 대표들과 실무자들의 한국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탄자니아, 르완다, 프랑스, 스페인어 성경 출판 및 공급을 위한 남미지역 성경 출판 위원회에 이어서, 마다가스카르,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재무 책임자들이 본 공회를 방문하여 향후 성서 제작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라고 말했다.

호재민 목사는 ‘모금 사업 보고’에서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이 보내 해금은 총 56억 8천여만 원이다. 현재 35,140명의 후원회원들에서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국내외 성경 기증 사업을 후원하고 있으며, 3,126곳(명)의 교회·기관·개인들에서 국가를 지정하여 미지립성서공회 성서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장총, 제41회기 출범 비전세미나

한장총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 다짐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한 목사)는 제41회기 출범 비전세미나를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갖고 한국장로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세미나에 앞서 대표회장 전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회와 신앙의 위기에서 공동 대응하는 입장과 성명을 분명히 하였다. 회원교단과 총회장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겠다”라며, “교회세움과 출산장려와 돌봄, 국가적 사회적 양자돌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부 비전세미나로 김재성 교수(전 국



제신학대학원 부총장)가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 혜택들: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 신령한 축복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 교수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교훈들을 종합적으로 따르지 않는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존중하면서 끊임없는 경신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묵묵하게 자신을 비판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암흑기를 헤쳐 나갈 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39차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 개최

세기총, 필리핀 마닐라 은광장로교회에서

(사)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은 지난 11월 26일(주일) 오후 4시 필리핀 마닐라 소재 은광장로교회(김관형 목사)에서 제39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마닐라 기도회를 개최했다.

세기총 평화통일기도위원회가 주관하고 세기총 필리핀 지회(지회장 임흥재 선교사)와 마닐라선교사협의회(회장 김해서 선교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150여 명의 세기총 임원 및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광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드린 이날 기도회는 그동안의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를 영상으로 담아 함께 시청하는 시간으로 시작돼 임흥재 선교사(세기총 필리핀 지회장·준비위원장)의 환영사, 전기현 장로(세기총 대표회장)의 대회사가 있었다.



대회를 전한 전기현 장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의 이 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해서 선교사(마닐라선교사협의회 회장)의 대표기도와 MK(선교사지녀) 앙상블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심평중 목사(세기총 제9대 대표회장)가 수 10:12-14 말씀을

중심으로 ‘태양아 머무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또 신성호 안수집사(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수석부회장)가 격려사를 이영석 선교사(필리핀한국선교협의회 회장, 호프미션크리스찬스쿨 이사장)가 축사를 전했다.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기도회 준비를 위해 헌신한 김관형 목사(마닐라 은광장로교회 담임)와 준비위원장 임흥재 선교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통령실 2023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 참석

한국해비타트, 사회적 약자에 관심과 배려 독려



주거복지 NGO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12월 4일(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 참석,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해

비타트를 비롯 총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 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보훈처의 보훈부 격상에 감사를 전

했다. 특히 그는 “내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도 많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집을 짓고 고집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고, 주거 생태계를 변화시키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 비영리단체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의 한국법인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인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공주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조요한 대표회장 “공주시를 복음화 도시로”

충남 공주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공주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2월 4일(월) 행복한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요한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회순제책, 전 회의록 낭독, 사무총장보고, 각부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회칙수정, 임원선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어 신임원 선출에서는 교단 대표 2명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대표회장 조요한 목사(행복한장로교회)를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대표회장 조요한 목사는 “한 해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공주시기독교연합회를 통해 공주시를 복음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석공동회장 조요한 목사(행복한교회)

의 사회로 시작한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남봉우 목사(광정성결교회)의 기도, 서기 김석중 목사(한빛침례교회)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나광진 목사(늘푸른감리교회)의 설교, 사무총장 김일호 목사(열린문교회)의 광고, 고문 양희옥 목사(신관중앙장로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공주시기독교연합회는 교단을 초월한 200여 회원 교회들이 소속돼 있으며, 상회기관인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지역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강기총, ‘미션 2024’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 홍보 캠페인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2024. 1. 19.~2.1.)을 50일 앞두고 ‘미션 2024 전국대회’가 지난 11월 30일(목)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렸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명환 목사, 이하 강기총)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 후원으로 열렸

다. 초청된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와 강원특별자치도 18시군기독교연합회의 참석자들은 강원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함께 선언했다.

김종우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와 김동호 목사(강원도청성기독교연합회 회장)가 대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진 대한민국의 자력과 위대한 국민의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와 역량을 모아 선교올림픽이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전체 참석자들이 △우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협력을 다한다. △우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선교올림픽이 되도록 기도하고 참여한다. △우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하여 전국교회와 연합하는 계기로 삼는다. △우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한다.

월드비전, 드림스쿨 ‘홈커밍데이’ 개최

HD현대인프라코어와 공동 운영하는 꿈지원사업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HD현대인프라코어와 함께 멘토링 기반 꿈지원사업 드림스쿨의 성과를 공유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월드비전과 HD현대인프라코어가 공동 운영하는 드림스쿨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꿈지원사업이다. 월드비전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약 22명의 아동을 선발해 HD현대인프라코어 임직원을 멘토로 지정, 아이들이 꿈을 찾고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12월 2일(토) HD현대 글로벌R&D센터(GRO)에서 열린 ‘홈커밍데이’는 지난 드림스쿨 활동에 참여한 멘티(67)와 멘토(9, 107)에 대한 수료식과 참석자들을 위한 전멘토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은 양재진 정신과 전문의가 ‘스트레스, 그리고 나’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월드비전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이날 현장에 참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HD현대 신사업 투어를 진행, 꿈에 대한 동기부여와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플리스 지켓, 보조 배터리 등 기념품을 제공하는 한편 멘토들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 생명의 말씀 ■



강순구 목사
• 설한탄물가선교교회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들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알리는 성탄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종로5가에는 거리의 나무들도 성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평화가 가정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눅 2:1~8

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하면서 정작 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생명의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리를 내놓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자리를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의 하수인으로 세워진 왕이기에 늘 자신의 자리가 불안했던 왕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자기 자리를 대신할 왕이 탄생했다는 것은 자기 왕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주장으로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하지요. 자기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기 자리를 내놓고 겸손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둘째로 항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중에 또 한 대상은 당시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는데 온 예루살렘이란 바로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며 메시아를 고대하라고 하던 자들이 소동하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중요합니까.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히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식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으로 생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했지만 씨늘한 마구간에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입니다. 눅 2:7에 "말아들을 낳아 감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 문구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요셉과 마리아 편에서 보면 여관에 들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 편에서 보면 핑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핑계 대지 맙시다. 바쁘지 않는 사람, 힘들지 않는 사람, 어렵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마음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 것도 병해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요 8:29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지 더 이상 주님을 씨늘한 마구간에 모시지 말고 마음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일에 치우쳐 주님을 찬양 신세 시키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길 때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성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천년 전에 오신 성탄의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정교도들은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만 아니라 다시오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믿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더욱 온전히 모시고 사십시오.

우리 모두 왕 노릇하는 완악한 자아를 깨뜨리고 항함 있는 믿음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세요.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법치주의를 흔드는 ‘탄핵’이 남발되지 말아야

최근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리 가운데 가장 국민들의 귀에 관심 있게 들려지고, 반면에 혼란스런 말이 ‘탄핵’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와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193명의 가결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견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다.

반면에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 234명의 가결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는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어 탄핵이 이뤄졌다. 파면은 비선 실세의 이권 및 특혜지원과 대통령직 권한 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이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대 야당에 의하여 결집하면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었고, 2023년 9월 유 모 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것으로 안 모 검사에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위장전입과 고발 사주를 이유로 이 모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자유 침해라는 것으로 역시 탄핵이 추진 중에 있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등의 발언에 대하여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사유화 등을 구실로 탄핵을 위한 ‘반윤 연대’를 구성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탄핵’(彈劾)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위법(違法)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당사자를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야권 경우에도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범죄 증거가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탄핵 소추 자체가 권한의 남용이 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현재 야당이 지당(自黨)의 대표 사수와 관련된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검

사가 탄핵소추를 당하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충분히 정치적인 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법치주의는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므로 하지만, 죄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결받으면 되는데, 이를 ‘탄핵 소추’라는 방법을 통해 저지하려 한다면 오히려 야당의 신뢰는 곧 무박질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듯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탄핵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이것은 남미 좌파 포퓰리즘을 답습꼴이라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1985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민선 초대 대통령이 탄핵으로 몰려갔고, 아르헨티나는 1980년 민주화 이후 83차

례의 탄핵이 있었고, 페루도 6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콜롬비아는 5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임되거나 몰려갔고, 파라과이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몰려났다.

그래서 ‘탄핵’을 민주주의에 감추어진 시한폭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三權分立)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 거대 야당이 온갖 빌미로 ‘탄핵’의 수단을 고집한다면, 우리나라는 입법 독재(獨裁)로 국가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파괴되어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건전하고 발전적인 정치 대신, 자신들의 세력을 비호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악용하여 ‘탄핵’을 조지롱 한 칼 휘두르듯이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야 한다.

탄핵을 함부로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가 법치주의에 얼마나 합당하며, 또 국가 발전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기 바란다.

동 정

‘성탄·부활절 휴일’ 종교 차별·반대



캐나다 의회 의원들이 성탄절·부활절 휴일을 ‘체계적 종교 차별 사례’라고 표현한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캐나다 하원은 법정 공휴일인 성탄절과 부활절을 “오늘날의 조직적인 종교 차별의 예”로 비난한 캐나다 인권위원회(CIHR)의 논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트뤼도 총리와도 의견을 나눴다.

한기총 한국교회의 밤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주최로 지난 12월 7일(목) 63컨벤션센터에서 ‘2023 한국교회의 밤’ 행사가 5년 만에 열렸다. 이날 정서영 대표회장은 대회사에서 “한기총이 정상화되고, 이제 옛 명성을 회복하고 더 크게 뻗어나가기 위한 자리에 서 있다. 나갔던 교단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신대병원 기독교브랜드 대상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이 지난 12월 5일(화) 기독교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고신대병원은 병원의 설립이념을 실천하며 국내외에서 꾸준한 의료봉사와 해외사연수, 나눔의료를 한 공적이 인정돼 사회공헌분야의 대상을 수상했다.

김지연 대표 성교육 문제 지적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성교육 도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성교육의 방향성은 가족과 생명의 중요함을 중시하는 ‘엡스타니언 교육’과, 원치 않는 임신을 조식하는 ‘세이프 교육’으로 나뉜다. 학교 성교육은 엡스타니언 교육이 위축되고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이프 섹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성황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 최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들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월례회 갖고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1월 23일(목)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 위치한 순복음사랑이넘는교회(담임 정환무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교단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삼통교회)의 사회로 강광수 목사(순복음민들레교회)의 대표기도, 진영호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성경봉독, 전임지방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계 2: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충성과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정환무 목사(사랑이넘는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가 실행위원회에 다녀온 일을 상세히 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월례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사랑이넘는교회에서 준비한 화와 장아구이로 식사를 하고 큰

처 커피숍으로 옮겨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의견들을 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12월 송년회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월례회 갖고 말씀의 열매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11월 30일(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한알의밀알교회(담임 신홍섭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성기찬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대표기도, 성기찬 목사의 성경봉독, 총무 오영덕 목사의 요 15:8~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목회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에는 성기찬 목사의 인도로 1. 말씀의 열매를 위해 2.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3. 지방회 모든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



고 재무 이종섭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김영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사회로 서기 성기찬 목사의 회원호명 후 보고 사항을 전달하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12월 4일(월)에 마산 알렘엘교회(담임 유명주 목사)에서 경남지방회 주관으

로 열리는 5개 지방회 임원 모임에 대해 안내하고 지방회 교회들과 회원 목사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며 월례회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한알의밀알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송년회 갖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이인복 목사)는 지난 12월 9일(토) 오전 11시 웅서리교회(담임 정진학 목사)에서 12월 월례회 겸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장 이인복 목사(송죽교회)의 사회로 직전회장 김영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전임회장 안홍규 목사(새하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안 목사는 살전 5:16 말씀을 본문으로 '기뻐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아가는 것은 당연하기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진리에 서서 의를 행함으로 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헌금 시간을 갖고 전임총회장 진등용 목사(은양은혜와진리교회)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지방회원들을 위한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인복 목사의 인도로 이종한 목사(양분교회)의 기도,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의 회계 보고, 지방회장 이인복 목사의 구국기도회 참석 권면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월례회를 마치고 지방회원들은 장소를 옮겨 점심 식사와 따뜻한 차를 나누며 교제 시간을 가진 뒤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바른복음 전파위한 목회자·사모 영성 세미나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12월 4일(월) 이목순복음교회에서 에하드 성경 원어 연구원장 문용남 목사를 강사로 지방회 목회자·사모 영성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지방회원들은 오후 5시 이목순복음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된 능이백숙과 따뜻한 치료 풍성한 대접을 받고, 오후 6시 30분부터 정재광 목사(생명샘교회)의 인도로 프



거운 찬양과 기도로 준비된 가운데, 7시에 신현찬 목사(기쁨찬교회)의 대표기도 후 9시

까지 문용남 목사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성경원어 세미나를 들으며 다들 큰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히브리어 원어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깊은 뜻을 알릴 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성과 더 많이 성경을 읽을 것을 도전받기도 했다.

세미나 후 김윤배 목사(오창샘교회)의 인도로 목회자 영성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후 9시 30분에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단양에서 월례회 및 가을야유회 가져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바울 목사)는 지난 10월 30일(월) 월례회 및 가을야유회로 단양의 장을 열었다.

이날 정회원과 부회원 총 20명이 참석했

으며 사부·사모들과의 동반 참석으로 모두 30명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가을야유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드림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안재봉 목사(비전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조영진 목사(부흥교회)의 성경봉독, 전임 지방회장 은금홍 목사(선한이웃교회)의 독

5: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회계·재무 김경순 목사(화목한교회)의 헌금기도, 은금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지방회원들의 조화로운 동참과 결의로 월례회를 마치고 단양에서 가을야유회

를 가졌다. 첫 번째 야유회 장소인 충주호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유람선으로 시작하여 소선암 자연휴양림을 둘러보았다. 이후 마늘야조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단양전도의 돌레길을 걸으며 도담삼봉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야유회를 마쳤다.

이런 야유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창한 날씨 아래 찬 기운으로 일찍 물든 단풍의 절경을 통해 참석자 모두 경기지방회 단합과 재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연합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 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경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회차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우위원회 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수시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30,000원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기독교계증명서(종교인신상관계) 1부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령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종교의 자유 위한 총선에서의 소중한 선택” 강조

“국가안보역량강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기도 당부

아산시지도자협의회 제12차 간담회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아산시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12월 5일(화) 오후 6시 제12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와 간담회를 갖고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화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이정팔 목사(성시화 운동본부장)의 사회로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예하성 전임총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아산시지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매월 기도회로 모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전하고 특별히 지난 한해는 이명수 국회의원이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경찰대학병원 유지를 위해 수고 많았다고 치하하

고 아산고속도로 개통으로 시민들이 교통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트밸리 아산 발전과 문화예술 방면에 큰 성과를 이루어낸 한해였다고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그중에 온천관광 공공브랜드 대상과 은행나무패션쇼를 열어 아산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박경귀 아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법안에 해당주민이 아닌 노조 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의 본래의 기능을 더욱 살려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모범사례로 육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한 아산시장을 회원들과 함께 축하하고 격려했다.

예배는 차추병 목사(삼광교회)의 대표기도, 최규명 목사(아산시기독교연합회 전 대표

회장, 사문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스 1:1-3 말씀을 본문으로 ‘영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돌아가지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며, 지도자들이 개혁하자”고 역설했다.

이어서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황하성 목사(담정나사렛교회), 민족복을 위하여’ 박차영 목사(화광교회), 공정선거를 위하여’ 서석웅 목사(아산성결교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임인순 목사(은종교회), ‘지역발전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서석웅 목사(아산성결교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저지를 위하여’ 신상우 목사(나성감목), ‘국가안보와 전쟁종식을 위하여’ 김원진 목사(전 개혁신교회)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김소윤 목사(전 기감감독)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2부 간담회는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진행으로 이명수 국회의원은 국정보고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19억 원을 확보하여 어



린이공원조성과 도시계획 도로공사비를 마련했다는 보고와 함께 간담회를 마치고 박성기 교수(전국교대학수협의회 대표)가 준비한 만찬을 함께 하고 사람의 교제를 나누

었다.

이윽고 남은 한해 잘 마무리되고 혼란한 정국이 수습되어 하루 속히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할 것과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학생

인권조례안이 폐지되도록 기도하여 줄 것과 내년 총선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지도자협의회

대표

진등용 목사
(전)예하성총회장

상임회장

김응규 도의원
(전) 아산시의회의장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
교회사연구소장

실무회장

홍석용 목사
(전) 아기연대표회장

사무총장

이정팔 목사
성시화운동본부장

교회


김소윤 목사
(전)기감감독


신상우 목사
(전)나성감목


김원진 목사
(전)개혁신총회장


임용석 목사
(전)개혁신총회장


정병한 목사
아기연 대표회장


이승수 목사
(전) 충기연총회장


최규명 목사
(전) 아기연대표회장


김수홍 목사
아산경찰서 경목실장


박귀환 목사
아산시기독교연합
봉사회 이사장


김병완 목사
아산시민족복을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박희중 장로
아산시장로회
대표


박해서 장로
충남평신도
사무총장

기관장


이명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박경귀 아산시장
(국민의힘)


이영도 아산경찰서장


박서우 교육장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폐능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호서대연구논문)
-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1010-2731-5594, 010-9884-5594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1010-2731-5594, 010-9884-5594

176112-51-020809(조경숙)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경기남지방회 월례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12월 12일(화) 부흥교회 수양관(서경오 목사)에서 12월 월례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고성록 목사(하비꿈교회)의 찬양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김진현 목사(비전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서성영 목사의 기도, 서기 강진홍 목사의 성경봉독, 목회자와 사모의 은혜로운 중창에 이어 전임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사 44:1-5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의 인생여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인용하여 야곱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닮은 모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소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 목사는 이어 “장자권 문제로 형의 노여움으로 고향을 떠나 외삼촌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어 거부가 되게 하였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가족과



전했다.

정 목사는 이어 “장자권 문제로 형의 노여움으로 고향을 떠나 외삼촌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어 거부가 되게 하였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가족과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압박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처절한 씨름(기도)을 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귀 입고, 벨로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때부터 여수론의 삶(의롭다, 정직하다)을 살게 된다”며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에서 신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 여수론의 복을 받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합심기도 후, 서기 김진태 목사의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인도로 12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하늘소망교회(조정훈 목사)에서 준비한 송년회 선물과 서경오 목사가 준비한 오찬을 인근 횡집에서 나눈 후, 총무 목사의 배려로 인근 카페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윤 정부는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전면 수정하라

제4차 NAP가 수용한 성평등 사상은 헌법 명시인 양성평등 사상에 위배되며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여 사회를 병들게 한다

한국 기독교 애장고신·대신·합신 3대 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4차 NAP 속 젠더주의·反생명주의’ 규탄을 표명하였다. 동반교연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지난 11월 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법무부 NAP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서 기독교한민족, 동방연, 진평연, 수기총 외 224개 교계·시민단체가 지난 11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제4차 NAP 초안 전면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독교 교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현 증진을 목표로 하는 57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수립·시행해 왔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가인권정책은 국가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인권에 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이란 명목은 오히려 NAP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의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되었다.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살롱비베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에 시행한 제3차 NAP가 젠더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전면 폐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와 1년 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전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살롱비베는 제4차 NAP가 여전히 젠더주의와 반생명주의 정책에 기초하여 입안되어 있음으로 이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명한다.

1. 제4차 NAP가 수용한 성평등 사상은 전다주의로서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 사상에 위배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헌법적 근거가 없고 양성 평등과 ‘성평등’이 혼용되어 있다.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은 NAP가 기초로 하는 젠더주의의 성평등과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NAP 초안의 추진과 제인 다양한 가족 개념은 1인 가구는 물론이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다. 헌법헌법과는 다른 성별 구분 기준을 주장하고 이것에 대한 반대표명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사회 성질서를 개편하려는 젠더주의 의도에 정부 정책이 연방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구별한다. 하지만, 성평등 용어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하고 성(gender)이라는 사회적 성(social sex)이라는 제3의 성별을 전제하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포함한다. 따라서 절대 혼동되어선 안 될 용어다.

윤석열 새 정부 들어선 후 법무부는 제4차 NAP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2022년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그 내용은 문재인 전 정권의 젠더주의의 인권정책을 호도(糊塗)하는 것이었다. 대통령도 바뀌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법무부 인권국은 바뀌지 않고 대통령과 장관에 항명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젠더주의의 인권정책을 답습하였다. 제4차 NAP 발표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1년 연기되었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에는 여전히 반헌법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편향된 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 당장은 NAP 시행으로 국민에게 오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후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 개정해야 한다.

2. NAP입안에 있어서 법무부는 UN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주의를 준거로 따르고 있다.

2023년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4차 NAP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에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강하게 남아 있다. 여성가족부 등은 조내내 성평등 문화를 실질화하고 성평등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며, 성평등 미디어교육, 문화 콘텐츠 및

실질문화 확산 등을 주장하였다. 법무부는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을 포함하는 UN국제인권규범을 차별금지법의 준거로 제시하고 있다. UN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계속 NAP,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 온갖 악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UN이 말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압력에 무너져선 안 된다.

문재인 전 정권에 이어 현 법무부가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제4차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미미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사각지대 속에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미미 언급이 없고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의 인권 보호라는 편향된 인권 관념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온갖 독소조항을 넣어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강화를 위해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맞춰서 동성애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독소조항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

3. NAP는 동성애의 국민 보건 유해성 알림, 낙태 비판 금지 등 반생명주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NAP의 첫 번째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NAP는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쫓돌 행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부터 본격 시행됐다. 두 번째로, 선진국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없다. 주로 후진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걸 하려고 한다. 이 외에도 제4차 NAP 초안에는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국민 보건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다. 그리하여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악물 낙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조장한다. 그러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 입법 추진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4. 제4차 NAP 속에는 인권정책기본

법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문재인 전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려 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을 현 법무부가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미미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편향된 인권을 강요하고,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첩된 인권기관을 설립해 정부와 별도로 제3의 권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낙태 등이 합법화될 것이다. 이 일에 현 법무부가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상대적 인권을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 법무부장관과 그의 참모들은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은 성소수자인 자기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소수자로 할찌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다. 이는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폭력이다.

5. 제4차 NAP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사회를 병들게 한다.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소 주장하고 있는 편향된 젠더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과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젠더이데올로기가 배정 사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사람의 성별 기준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주장하고 있어 헌법헌법을 어긋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오던 거짓 인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동

성애가 난무하게 되면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에이즈 90% 이상이 동성 간 성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동성애자 자신도 극단적 선택, 자살 충동, 포르노 중독, 죄의식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6. 제4차 NAP는 미래의 재산이요 희망인 아동 및 청소년을 타락하게 한다.

제4차 NAP는 애국된 성인권교육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탈선 부추기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보내고 실시한 성인권교육을 보면 개인의 성적(性的) 권리에 근거해 일상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태도,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된다.

특히 초등학교생에게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성적자기결정권, 양성평등이 아닌 수식 가지 성별을 말하는 전지를 교육한다. ‘청소년의 임신·출산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등의 시행은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킨다.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보면 동성행위를 정상적이고, 낙태는 권리며, 성별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급진 페미니즘 교육을 가르치면서 정작 애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가르치지 않는다.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부추기는 성(性)인권교육을 삭제해야 한다.

7. 양성애의 비판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자치(組)되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인권이 아니라인들의 과력과 오묘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의 공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건전한 비판과 표현 의사를 징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의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저지(阻止)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성소수자’(동성애자의) 규범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성소수자(성소수자)에게 강요하는 폭력이다. ‘모든 법은 정의의 가장한 폭력’이라고 한 독일 마르크스주의 미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사상이 이들에게 적용된다. 공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사람으로 할 것이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해로운 것은 해롭다고 말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느닷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항문성교가 에이즈(ADS)의 주 원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되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과학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동성애 세력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국민들을 억압하고 반동성애적 표현에 대해서는 한 마디라도 거자 없이 벌파처럼 공격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편향된 언론들이다. 동성애 단체나 친동성애 인권 단체나 그쪽으로 기울어진 언론들은 자신을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뿐, 다수의 양성적이고 균형 잡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양성적 목소리를 철모로 몰아 집중화함을 쏘아낸다. 하지만 동성애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이 아니다. 인권들의 폐락과 오염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다.

8. 한국교회는 사회의 성윤리와 생명윤리 지킴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이 진실임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비참성(성소수자)이 상식(성다수자)을 이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 성경의 진리를 대기를 치르더라도 손해를 볼찌라도 입으로 말하고 글로 써서 마땅히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해야 한다.

알아야 할 것은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사실로 도용(濫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닌 것을 아나고 이야기해야 한다. 성 개변과 동성애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건전한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제시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거룩한 유산을 이어 받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유20-22)

2023년 11월 27일
살롱을 꾸리는 나비행동

CTS기독교TV 창사 28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감경철 회장, “다음세대 부흥과 세계 복음화 최선 다짐”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12월 1일 (금) CTS아트홀에서 창사 2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CTS법인이사인 윤영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는 CTS법인이사 조강진 목사의 기도와 CTS 20-23대 공동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명구 감독의 설교, 20대 공동대표 이사를 역임한 이성희 목사의 격려사, 장기근속직원 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전명구 감독은 순수복음방송 CTS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한다”며 “목숨보다 귀한 생명인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로 함께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희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CTS가 갖고 있는 착한 방송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 가길 기대하며 혼란한 시대 선한 영향력을 지속하는 CTS가 되길 기도한다”고 권면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평안을 지니온

것 같은 CTS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며 “순수복음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께주신 동역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30주년을 앞두고 CTS는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 감사예배에는 K-가스펠 시즌2 최종 우승자인 송주섭 찬양차역자의 특별찬양과 장기근속직원 표창 등이 이어졌다.

지난 1995년 개국한 CTS기독교TV는 국내 대표 기독교 방송사로서 2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점유율 기독교 1위를 차지하며 복음전파는 물론 ‘대한민국성탄축제’와 ‘부활절 페스티벌’ 등 기독교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출범 등 국가 위기인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대국민운동에도 힘쓰고 있다.



장기기증운동, 송년 ‘Hero Day’ 개최

신장기증인과 신장이식인, 후원회원, 재능기부자 등 참석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 12월 2일(토) 서울시 영등포구 ‘TCC아트센터’에서 2023 송년 행사 ‘Hero Day’를 진행했다. ‘Hero Day’에서는 생존 시신장기증인(리빙도너)과 신장이식인, 후원회원, 재능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리빙도너 갤러리를 통해 감동적인 신장 기증 이야기를 만났다. 또한 재능기부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디지털 캐리커처와 캘리그라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다양한 방법의 생명나눔 가치를 나눴다.

행사에서는 예품뮤직 대표이자 이번 행사 사회자로 함께한 피아니스트 최혜영 씨의 피아노 솔로곡 ‘Disney medley’ 연주로 막이 올랐다. 1부에서는 신장기증인 예우사업과 리빙도너 캠페인 보고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신장을 기증하고 이식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재생명나눔회’의 회장 이태조 목사와 최초의 모자(母子) 신장기증인 엄혜숙 씨가 무대에 올라 ‘나는 신장이 하나입니다’를 주제로 감동을 전했다.

이어 1998년 신장을 이식받은 박순환 씨가 무대에 올라 ‘기증인의 순수한 사랑과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며 “기증인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을 잊지 않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했다.

3부에서는 오랜 기간 장기기증 운동을 후원해 온 이들이 생명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나며 신장을 기증한故 장현식 씨의 딸 장사랑 씨는 작고한 아버지에 이어 생명나눔 운동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마지막 순서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채워졌다. 클래식 공연으로 치유와 감동을 전하는 음악가들의 모임

인 예품뮤직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김효근 작사, 곡 ‘눈’ 등 감미로운 선율이 울려 퍼진 뒤, 벌룬데코의 ‘별론 마음’과 ‘버블 쇼’가 펼쳐지며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박진탁 이사장은 “새 생명의 기적을 이룬 리빙도너의 순수한 사랑과 용기가 한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불씨처럼 이 사회에 따뜻한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후원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기기증의 가치를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살롬나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는 연말과 성탄절을 맞아 매년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12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프레이포유교회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폭넓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레이포유교회와 함께 종로 쪽방촌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프레이포유는 2023년 1월부터 프레이포유 서울팀과 프레이포유 연합팀으로 나누어 사역하고 있으며 거리에 계신 분들과 좁은 방에서 사는 분들을 위로하며 요청하는 물품도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는 귀한 단체이다.

종로 쪽방촌은 취사 도구를 갖춘 기구가 많지 않아 쌀대신 맛있는 떡과 음료를 준비하여 프레이포유

교회 봉사자들과 살롬나비 방문자들이 네팀으로 나누어 각팀이 쪽방촌 각 가구를 돌며 떡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하고 기도하며 위로와 격려로 힘을 보태어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소통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격려하였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쪽방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미국 땅에도 가족세트전도

거룩한 비전이며 천상천하 주의 뜻 이루시는 아예 천상의 신록 앞산을 저시는데 천상의 향기 취한 산새소리에 웅달샘마저 하나님의 영광 화답 하네.

5대양 6대주 미국 땅에도 가족세트전도 복음의 햇불은 활활 떠오르네. 아, 그리운 천상의 기쁨이며 생명의 신비여 지혜로운 등불준비 순결의 신부되리라.

신록의 지평언덕 여명이 밝아오면 새벽은 아득을 훑어주시니 시간의 진실은 어둠의 가면을 벗기고 광명의 반격을 가하리라.

아, 찬란한 천국열쇠여 이곳에 주님의 몸 세우셨네. 흑암의 풍림이며 애수의 빛 앞에 잠잠하라.

교회여 생명이며 온누리 깊고 높푸른 하늘의 영광 찬양하라. 이곳에 오는 아예 주의 평화 있오라. 이곳에 머무는 아예 주의 기쁨 있오라. 이곳을 나서는 아예 주의 축복 누리소서.

아! 그리운 영혼의 고향, 영원한 안식처 축복의 전당 되소서. 아, 복된 주의 몸이시여 거룩한 주의 임재 넘치소서. 주의 감동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소서.

쉽없이 코로나 때도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의

끊임없는 전도세미나와 전도현장. 거리, 공원, 일터에 복음의 햇불을 들고 나신다.

이번 8주 동안에도 순금 등대 같은 미국교회들을 전도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었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많은 도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불을 붙여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는다.

이번 8주간은 기독교선언인과 미국선교팀으로 출발하여 미국일대를 선교관람하고 초청예배 및 참관예배를 드렸다. 이민사회의 교회는 선교지라 아니할 수 없다. 24시간 뛰어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낸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거룩한 결실의 열매를 맺은, 뜨거운 열정이 예배와 함께 한 삶으로 생동감 넘치는 매릴랜드 한인장로교회 최영 목사의 비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사회에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높이 기대되는 모습 다시 한번 그려본다.

가족세트전도 본부장 시인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1691, 010)3730-2573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모하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50,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302-1777-9898-51 농협은행 김영국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측정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믿음으로 새날 같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진실되고 성실한 이들이 받는 복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특별하다. 최근 90세의 나이로 은퇴한 청풍그룹의 회장 리카싱은 자산 30조 원을 보유하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부자이며 아시아의 최대 갑부이며, 성실함의 교과서라고 평가받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던 사람이다.

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나 중일 전쟁을 겪은 리카싱은 이후 홍콩으로 이주하고 작은 시계상점의 청소부로 일하며 가장 역할까지 짊어졌다.

이후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해 하루 16시간 동안 일하는 등 모진 노력 끝에 종잣돈을 모았고, 22세에 차린 회사 또한 피와 눈물을 토대로 마침내 성공 궤도에 올랐다.

플라스틱 조화 시장에서 큰 돈을 번 리카싱은 홍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틈을 노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그가 맨 손으로 일군 청풍그룹은 홍콩 내 7만여 채의 빌딩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의 전설적 철강업계의 신화, 강철왕 카네기(Andrew Carnegie)의 삶과 그의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는 큰 교훈을 준다.

철강 기업의 신화를 일군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은퇴를 앞둔 무렵이었다. 기업 내에 탁월하고 경쟁한 인물이 많았던 만큼,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있을 때, 카네기는 파격적인 인물을 소개했다.

자신의 비서였던 찰스 슈브(Charles Schwab)였다. 슈브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며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했었던 사람이었다. 이 발표에 대하여 많은 이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카네기는 "훌륭한 학벌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너무도 많지만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쉽지 않다. 슈브를 후계자로 선정한 이유는 성실함과 책임감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진실 되고 성실한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의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이다" (시 37:3)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교회 권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자한 아브라함
말씀을 좇아간 순종의 사람
밤 하늘의 별빛 보이며
후사를 약속하신 하나님...

수 천년 흘러 흘러
약속대로 닦은 자손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세상 악한 영들 호시탐탐 노렸어도
능력되신 하나님 능동자처럼 지키셨네.

밤하늘의 별 하나 베들레헴 예수께로
동방 박사 인도하여 경배찬양 하였듯이
주~ 성령 날 인도해 경배하게 하시네.
주~ 성령 날 인도해 찬양하게 하시네.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사함의
예배를 드려니 이런 찬양 이런 감사
나의 맘을 충만케 한다.

사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기이하고 감동적인 사건은 없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상 최대의 기쁜 소식이며 가장 놀랍고 위대한 소식이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는 노래하기를 "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했다.

아시아 선지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다" (마 4:16)라고 예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 기적을 베풀어 풍랑을 잠재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여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정국을 극한으로 몰고 가며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를 앞세운 무력사용도 불사하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어려운 한반도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그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기적의 하나님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 31:6) 예수님은 정한 때에 다시 오신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 할 준비는 됐는지 살펴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늦춰졌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레 혼인 건수도 2011년 32만 9000건에서 2022년 19만2000건으로 41%나 급감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은 2012년 56.5%에서 2022년 36.4% 감소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출생이 감소로 이어진다.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2018년 46.4%에서 2022년 53.5%로 늘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비혼), 늦게 하고(만혼),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무자녀)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추락한 것이다. 압도적으로 세계 최악이다. 국가 파멸 수준의 결혼 기피 현상과 저 출생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다. 정부 여당이 지난달 24일 '청년 내 집 마련1.23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무주택 청년이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연 2%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결혼(0.1%p), 첫 출산(0.5%p), 추가 출산(0.2%p)을 하면 금리가 최저 연 1.5%까지 낮아진다는

계 정책의 핵심이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6%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경우 정부가 대출 이자 대부분을 탕감해 주는 셈이다.

최근 '항거리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항거리 모델은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먼저 약 4000만원을 대출 해준다. 그리고 5년 내에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2명을 낳으면 대출액 3분의1을 면제해주고 3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해준다. 즉 원금을 모조리 탕감해 주는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항거리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이 목표다.

현재 EU 내 인구 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인 나라는 프랑스다. 한때 저출산으로 고통을 겪은 나라가 프랑스였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 최대 인구 증가 국가가 된 것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고 이자 비용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항거리 모델과 엇비슷하다는 분석들이 많다. 인구가 증가해야만 된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창 9:7)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24년 1월 8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전임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12월 20일(수)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 사 김 병 목
총 무 목 사 정 진 군